

『古今和歌集』의 恋歌와 헤이안문학*

南 二 淑**

(e-mail: ysnam@kunsan.ac.kr)

目 次

1. 시작하며
 2. 『고킨와카슈』와 연가(恋歌)
 3. 연가와 헤이안 귀족의 풍류생활
 4. 연가와 헤이안 산문문학의 영향관계
 5. 나오며
-

1. 시작하며

일본의 전통시가는 57577로 우리의 시조보다 짧은 음수율로 이루어진 와카(和歌)이다. 와카의 와(和)는 야마토(大和; やまと) 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こたふる(화답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상대방에 맞추어 화답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이처럼 와카와 인간의 사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사랑에 관한 노래는 가장 오래된 가집인 만요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694 恋草を 力車に 七車 積みて恋ふらくわが心から(만엽 広河女王)

사랑을 하면 돌아나는 연초를 짐수레에 일곱 번이나 실을 정도로 사랑 하는 마음은 커졌다. 그것도 내 마음으로부터.....

3816 家にありし 櫃に鍵刺し 蔵 (をさ) めてし 恋の奴が つかみかかりて

집에 있는 상자에 열쇠를 채워 가두어 둔 사랑의 노예가 달라든다

* 이 논문은 군산대학교 2014학년도 대학자체 학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함

** 군산대학교 교수

『만요슈(万葉集)』에는 이러한 사랑에 관한 시가가 相思, 相別, 相聞, 戀慕, 正述心緒¹⁾, 寄物陳思²⁾ 등의 항목으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권에 흩어져 채록되어 있다. 이토록 연가가 일본고전시가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의 신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에로스의 산물인 이상 언제나 사랑을 꿈꾼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산물이 연가라고 생각된다.

헤이안시대 천황의 명을 받아 편찬된 최초의 칙찬집인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에서는 사랑에 관한 연가(戀歌)가 5권에 걸쳐 앤솔로지화되어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있다. 『고킨와카슈』의 영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후에 편찬되는 칙찬집에도 다른 어떤 항목보다 연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칙찬집이 아닌 개인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일컬어지는 『고킨와카로쿠조(古今和歌六帖)』의 경우도 연가란 항목을 보면 『고킨와카슈』와는 다른 관점으로 분류하여 세분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을 주제로 한 고킨슈의 연가는 동시대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 이후의 일본의 모노가타리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관건일지 모르지만 연가와 헤이안 문학의 관계에 주목하여 쓰인 논문은 아직 접한 적이 없다.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한 연가의 역사³⁾ 『고킨와카슈』의 연가의 구조론⁴⁾을 다루거나 사적 연애감정이 아닌 寄物陳思와 같은 노래 중심으로 궁궐과 같은 공적인 장에서 읊을 수 있는 노래 중심으로 편찬되었다는 논문⁵⁾ 정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고킨와카슈』의 「연가」가 헤이안시대 문학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와카집과 산문 문학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고킨와카슈』와 연가(戀歌)

『고킨와카슈』 眞名序에 「와카란 사람의 마음을 근간으로 삼아 모든 언어가 되었다(ソレ倭歌ハ、其の根ヲ心ノ地ニ託ケ、其の花ヲ詞ノ林ニ発クモノ也)」⁶⁾라는

1) 마음을 느끼는 그대로 노래함

2) 사물에 빗대어 마음을 노래함

3) 岩井·茂樹 (2005) 「戀歌の歴史—江戸時代を中心に」 総研大文化科学研究

h <http://handle.net/11094/24787>

4) 鈴木宏子 (2006) 「古今和歌集の戀歌について—構造論の授業における可能性」 『千葉大学教育学部研究紀要』 54

5) 辰巳正明 (1996) 「戀歌—古今集の文学景觀論」 『成城国文学紀要』 12

말이 있다. 와카란 漢詩 즉 중국의 시를 의식해 일본의 노래를 칭한 것인데, 어느 틈엔지 한시와 관계없이 일본의 전통시가를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와카를 일본 문학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일본의 모든 문학과 문화의 근간이라는 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7세기경에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柿本の人麻呂)와 같은 위대한 가인이 출현하고 수차례의 단계를 거쳐 8세기 말에 『만요슈(万葉集)』란 가집이 최초로 편찬된다. 그리고 905년 『고킨와카슈』를 필두로 천황의 칙령으로 만들어진 칙찬집은 15세기 말 21대집의 『新統古今和歌集』까지 편찬되고, 와카 경연대회인 우타아와세도 헤이안 시대에만 460번 행해지고 있다. 칙찬와카집 편찬이 끝난 이후에도 와카는 연면히 계승되어 근세 메이지까지 읊어지고 있는 걸 보아도 와카가 일본문학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국가적 과업으로 가장 먼저 편찬된 勅撰集은 『고킨와카슈』이다. 이 가집은 일본의 전통과 미의식의 전형이 담겨 있어 일본문화나 문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다. 가집은 춘·하·추·동, 축하, 이별, 사랑, 여행, 죽은 자를 위한 애상가, 잡가 등의 20권으로 1111수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5권 360수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恋歌이다.

恋歌의 비중이 왜 이렇게 클까?

편찬자 중의 한 사람인 기노쓰라유키가 쓴 『고킨와카슈』 ‘假名序’를 참고해 보자.

今の世の中、色につき、人の心、花になりけるより、あだなる歌、はかなきことのみに
 くれれば色好みの家に埋もれ木の、人しれぬこととなりて、まめなるところには、花すすき穂
 にいだすべきことにもあらずなりたり。7)

(지금 세상은 너무 요란하여 사람 마음 또한 들떠 있으니 내용이 변변치 못한 노래, 한심스런 노래만 불린다. 호색한들의 집에 파묻혀 있는 나무처럼 식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오지도 못하니 참여세의 이삭만도 못하다.)

『고킨와카슈』 이전 9세기 초 와카는 인기가 없었다. 만요슈가 편찬된 8세기 이후 일본의 관료들은 중국의 선진문화를 수용하는 정책으로 한시를 향유했다. 와카를 즐기는 대신 한시를 즐기고 한시에게 자리를 내어준 와카는 사적인 자

6) 片桐洋一 訳・注 (1990) 『古今和歌集』 創英社 440p

7) 注6) 20p

리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도 와카에 대해 ‘호색한의 집에 파묻혀 있는 나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애 감정을 전할 때에는 와카가 사용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자생활에 주목해 보면 헤이안시대 남성들이 쓰는 공식적인 글은 모두 한문이었다. 남성들은 한문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한시로 자신의 기분을 전달할 수 있었으나, 상대 여성이 해독할 수 없었으므로 무의미한 일이었다. 따라서 당시 이미 통용되고 있었던 히라가나를 사용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본다. 남성들이 가나로 적은 와카를 보내면 여성들도 가나를 통해 화답하는 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때 호색한들이 사랑의 감정을 와카로 부르지 않았더라면 와카의 존재는 어떻게 되었을까. 단언컨대, 『고킨와카슈』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위의 서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며, 『고킨와카슈』의 탄생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채록된 연가들의 세계는 어떠할까.

이들 노래들은 한 수 한 수 따로 감상도 가능하지만 관계성이 부여되어 있다. 연가의 경우, 큰 시야에서 보면 사랑의 시작에서부터 이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배열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 전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랑노래 항목에 분류되어 있는 몇 수를 실례로 들고자 한다.

470 音にのみきくのしら露夜はおきて昼は思いにあへずけぬべし

소문으로만 들던 님 때문에 밤엔 국화위의 이슬처럼 깨어 있고 낮에는 햇빛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못 견디고 사라진다

475 世中はかくこそありけれ吹風の目に見ぬ人もこひしかりけり

남녀의 인연이란 이런 것인가 부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워지네

470번 노래는 소문으로만 듣고 그리던 사람을 국화 위에 내리는 이슬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다. 당시엔 이와 같이 소문이나 이름만 듣고도 사랑에 빠질 수 있었다. 475의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란 당시 습관으로서 중류층 이상의 여자는 부모나 형제 이외의 남자에게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읊어진 구로, 것처럼 볼 수는 없어도 소문만으로 그리웠다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차츰 고조되는 감정을 더욱 고조되어 간절한 마음을 담은 와카들이 다음과 같이 배열된다.

- 480 たよりもあらぬ思ひのあやしきは心を人につくるなりけり
 심부름꾼도 아닌 불타오르는 감정이 신기하게도 마음을 남에게 전하고 말았네
- 482 逢ふことは雲居はるかに鳴る神の音に聞きつつ恋わたるかな (古今)
 당신을 만나는 일은 구름 아득히 멀리 있어 불가능하겠지요. 우레 소리를 듣는 것처럼 멀리서 들리는 소식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 483 片糸をこなたかなたによりかけてあはずは何を玉の緒にせむ
 한 올 한 올씩 이리저리 엮듯이 만나지 않는다면 어찌 구슬이 엮이지리오

480에서는 불타오르는 연정과 마음을 ‘思ひ’로 표현하여, 불타오르는 연정으로 마음이 몸에서 빠져나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 있음을 읊고, 482에서는 멀리 떨어져 만나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483에서는 ‘실은 서로 꼬아야 엮이는 법, 그리워하는 당신을 만나지 않으면 무엇을 ‘생명의 끈(玉の緒)’으로 살아가리오’ 하며 사랑을 위해서는 만남이 필요하다고 읊고 있다. 이처럼 그리워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점점 강도가 높아진다.

- 508 いで我を人などがめそ大船のゆたのたゆたにももの思ふころぞ
 사람들이여 날 책망하지 마소 큰 배가 흔들흔들 흔들리듯이 마음도 흔들려 사랑의 수심에 잠겨 있다고
- 570 わりなくも寝てもさめても恋しきか心をいつちやらばわすれむ
 자나 깨나 숙절없이 그가 그림구나. 도대체 이 마음을 어디에 쥐야 당신을 잊을 수 있을까

그리워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사랑, 짝사랑으로 그리움에 번뇌하는 마음, 하루빨리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노래는 615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는 서로 만나 정담을 나누고 만난 후 다시 만나지 못하는 고통,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만나는 마음을 읊은 노래들이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다.

- 616 起きもせず寝もせて夜を明かしては春のものとながめ暮しつ
 깨어 있지도 잠들지도 못하고 밤을 지낸 후 하염없이 봄비 바라보며 지냈소
- 634 恋ひ恋ひてまれにこよひぞ逢坂の木綿つけ鳥はなかもあらなむ
 몹시 그리다 어렵게 오늘밤 만나게 됐네 오사카관문의 닭 울지 않았으면...

616의 와카는 그 서문을 참고로 하면 ‘삼월 초하루 은밀히 사랑하는 이와 대화를 나누는 후에 비가 소리 없이 내릴 때에 (弥生の一日より、忍に人にもら言ひて、後に、雨のそほ降りけるに)’ 지어서 보낸 노래로 되어 있다. 마음이 있는 여성

과 다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봄비를 소재로 하여 에둘러 잘 읊고 있다. 634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오늘 밤에 만나니 못 다한 정을 오래 나누고 싶으니 닭이여 제발 울지 말아다오 라고 호소하고 있다. 헤이안 시대에는 ‘가요이콘(通い婚)’으로 남성은 밤에만 부인과 함께 보내고 동이 뜨기 전에, 즉 닭이 울기 전에 여성의 집을 나와 돌아가야 했다. ‘오사카(逢坂)’는 당시 동쪽의 관문으로 도읍지를 떠나는 사람이나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송별하던 곳으로 이 노래에서는 ‘만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하룻밤 지낸 날 다음날은 하룻밤을 함께 보낸 감회를 와카에 담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와카를 ‘기누기누(後朝)’의 노래라고 일컫는다.

644 寝ぬる夜の夢をはかなみまどろめばいやはかなにもなりまざる哉

함께 지낸 밤 꾸었던 꿈 덧없어 잠을 청하니 허무함만 더해간다

서문에 ‘여자를 만나 다음 날 지어 보낸(人に逢ひて朝に、よみて遣はしける)’ 노래라고 되어 있다. 함께 했던 지난밤이 꿈만 같기에 확인하려고 잠을 청했다. 어제의 만남이 현실이었기에 만남의 덧없음이 더욱 강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이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691 今来むといひしばかりに長月の有明の月を待ち出でつるかな

금방 온다던 그 말만 믿고 기다렸건만 그대는 오지 않고 새벽달만 떴구나

821 秋風の吹きと吹きぬるむさしのはなべて草葉の色かはりけり

가을바람이 부는 무사시노는 풀잎색이 모두 변해버렸다 똑같이 그 사람 마음에 찬바람이 일어 나와의 인연도 시들어버렸구나

691노래의 ‘새벽달’로 번역한 달은 ‘9월 음력 하순에 뜨는 새벽달(長月の有明の月)’로 긴긴 가을밤에 밤을 새워 님을 기다리는 여인의 처량한 모습을 묘사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정을 나눈 후 금방 온다던 말을 끝이곧대로 믿었건만 결국 홀로 밤을 지낸 것이다.

821의 노래 ‘가을바람(秋風)’의 ‘가을(秋)’에는 ‘싫증남(飽き)’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가을바람에 의해 나무와 풀이 바뀌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싫증을 느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상과 같이 『고킨와카슈』의 노래는 보지 않은 사람을 사모하는 노래부터 실연의 슬픔을 읊은 노래로 연애의 모든 양상이 그 진행과정, 즉 프로세스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사랑을 위한 와카의 매뉴얼 내지는 참고서라고 할 정도의 구성법으로 연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3. 연가와 헤이안 귀족의 풍류생활

그러면 왜 이런 가집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당시 귀족사회는 와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편지나 선물을 주고받을 때 문안을 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와카는 항상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직접 대화를 하거나 만나는 일은 품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고킨와카슈』가 여성들에게도 당시의 교양서이었던 것은 『마쿠라노소시(枕草子)』 20단에 나타나 있다.⁸⁾

무라카미 천황 시대의 센노텐노노고(宣耀殿女御) 라고 하는 분이 고이치조(小一条) 좌대신의 여식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부군이신 대신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자.

“첫째로 서예를 배워라. 다음으로 거문고를 다른 사람보다 잘 연주해야 함을 유념해라.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킨슈의 노래 20권을 암기하여 너의 학문으로 삼거라.”

대신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천황도 일찍이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있었던 차에 모노이미(物忌み) ⁹⁾ 의 날을 맞아 고킨슈를 가지고 센노텐노노고의 거처에 납시었다. 그리고는 휘장을 세우도록 하시기에 센노텐노노고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황이 책을 펼쳤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아무개가 읊은 이 노래는 어떤가?”

천황이 이와 같이 노래 앞에 서문을 읽으며 물으셨다.

“아하, 나를 시험하려는 것이구나.”

분위기를 파악한 센노텐노노고는 재미있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은 했지만.....

..후략...

여기 등장하는 무라카미 천황은 제62대 천황으로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천황 중한 사람이다. 이 천황이 황후보다 한 단계 아래인 후궁비 가운데 귀여운 용

8) 松尾聡·永井和子 校注·訳 (1978) 『枕草子』小学館 89p 본문은 「村上の御時、宣耀殿の女御と聞えけるは、小一条の左大臣殿の御女におはしければ、誰かは知り聞えざらん。まだ姫君におはしける時、父大臣の教へ聞えさせ給ひけるは、一つには御手を習ひ給へ、次にはきんの御琴を、いかで人にひきまさらんとおぼせ、さて古今の歌二十巻を、皆うかべさせ給はんを、御学問にはさせたまへとなん聞えさせ給ひけると、きこめしおかせ給ひて、御物忌なりける日、古今をかくして、持てわたらせ給ひて、例ならず御几帳をひきたてさせ給ひければ、女御あやしとおぼしけるに、御草紙をひろげさせたまひて、その年その月、何のをり、その人の詠みたる歌はいかにと、問ひきこえさせたまふに、かうなりと心得させたまふもかしきもの、ひがおぼえし、わすれたるなどあらば、いみじかるべき事と、わりなく思し乱れぬべし。そのかたおぼめかしからぬ人、二三人ばかり召し出でて、碁石して数を置かせ給はんとて、聞えさせ給ひけんほど、いかにめでたくをかしかりけん。」으로 되어 있다.

9) 陰陽道에 의한 당시의 풍습으로 부정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피하거나 장소를 옮김

모를 한 센노텐노요고, 즉 호시(芳子)¹⁰⁾라는 여인을 총애해 고킨슈에 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했다는 일화의 한 부분이다. 호시의 아버지 모로마사(師尹)¹¹⁾는 당시 좌대신, 권력욕이 강한 사람으로 딸 호시를 무라카미 천황의 배우자로 하기 위해 철저히 교육시켰는데, 서예·거문고와 함께 와카 암송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재미있는데, 무라카미 천황은 잘못 알고 있거나 빠뜨리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와카에 조예가 깊은 상궁을 배석하게까지 했다. 그러나 한 자도 틀리지 않아 자신이 패했음을 인정하고 같이 잡자리에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호시가 『고킨와카슈』를 암송했다는 기록은 역사서인 『오카가미(大鏡)』에도 나와 있으므로 사실임에 틀림없다. 헤이안 시대 손꼽히는 재녀이기도 한 『마쿠라노소시』의 작자인 세이쇼나공은 ‘이 얼마나 우아하고 훌륭한 장면인가! 배석한 노보가 부럽다’라고 하며 그 자리에 배석한 노보를 부러워하고 있다. 『고킨와카슈』 1111수의 노래를 완벽히 외우는 호시의 실력이야말로 당대 상류 여성들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화이다. 974년 경 성립한 것으로 알려진 『가게로우일기(蜻蛉日記)』에도 작자가 맞아들인 양녀 교육에 관하여 ‘어린 아이에게는 서예와 와카를 가르쳐라(小さい人には、手習い、歌よみなど教へ)’¹²⁾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와카를 공부해 두는 일이 아이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그녀들의 역량은 와카로 평가되었다. 호시와 같이 『고킨와카슈』의 노래를 잘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집의 노래를 패러디해 기지를 발휘할 수도 있었고 교묘히 바꿔 임기응변의 의사소통을 꾀하고 있다. 『가게로우일기』와 『이즈미시키부일기(和泉式部日記)』를 쓴 여류작가들은 와카언어가 일상 언어와는 달리 심정 차원의 언어임을 깨닫고 와카를 통해 서로의 고독한 심정을 나누고,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위무하고, 때로는 연대감을 획득하기도 한다. 특히 신선향씨가 지적한 것처럼 『겐지모노가타리』의 작자는 와카를 통해 주인공의 인물상이나 주제를 형상화시키기도 한다.¹³⁾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4장에서 다루겠지만 당시 헤이안 문학의 주인공들은 와카로 상대방 여성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와카, 그 중에서도 연가를 잘 읊는 남성들이 당대의 유명한 산문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학의 천재들이 연애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10) 일본의 역사 역사와는 달리 국문학 분야에서는 여성의 이름을 음독하는 것이 관례임

11) 모로타다 로도 읽을 수 있음

12) 菊地靖彦·木村正中·伊牟田経久 校注·訳(2000) 『土佐日記 蜻蛉日記』小学館 288p

13) 신선향(2008) 『일본 헤이안 시대의 物語文学과 和歌』, 제이앤씨, 348p

『고킨와카슈』 이후의 칙찬가집의 경우도 연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면의 제한도 있으므로 4대집까지의 칙찬집의 연가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자.

『고킨와카슈』 편찬자 중의 한 사람인 쓰라유키가 목표로 한 것은 궁정사회에서의 와카의 복권이였다. 그리고 실제 고킨슈의 성립을 계기로 와카의 사회적 지위는 상승했다. 하지만 그러면서 바로 질적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14)

와카가 일상생활 연애 등의 감정 표현의 수단이 됨에 따라 사람들은 때때로 노래에 의해 일상사를 전달하고 와카가 센스 있는 회화를 대신하게 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연정을 주고받을 때 이러한 현상은 심하고, 이 때문에 품격과 질이 떨어지는 와카가 후궁을 중심으로 귀족사회에 범람하고 그 중 몇 수는 와카의 전설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大和物語』란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은 다음에 편찬되는 제2대 『고센와카슈(後撰和歌集)』에도 계승되어진다. 고킨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병풍가나 우타아와세 노래는 크게 감소하고 사랑을 중심으로 한 연가의 비중은 총 1425수 중 507수를 차지해 더욱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상에서 주고받은 자신들의 와카 창작 배경을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충실히 반영해 정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와카 서문은 길어지고 고킨슈에서는 극히 적었던 증답가가 180여조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33 おほかたはなぞや我が名の惜しからん昔のつまと人に語らむ

대충 들어주지 않아도 내 이름 따위 아깝지도 않아요. 설령 헤어진다 해도 과거의 반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테니...

634 人はいさ我はなき名の惜しければ昔も今も知らずとをいはん

당신의 경우는 어찌되든 사실도 아닌 일로 소문이 나는 게 싫으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른다고 할 거예요.

633의 노래는 사다모토(貞元) 황태자의 노래이다. 서문의 해석을 참고로 하면 궁중에 기거하는 오호쓰부네란 여인에게 선물과 함께 와카를 보내도 반응이 없자 가벼운 헐박을 가하는 내용이다. 그런 황태자에게 오호쓰부네는 진실과 무관한 소문만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리고 가볍게 응수하고

14) 島津忠夫 (1991) 『和歌史』 和泉書院 71p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후자의 634의 노래는 『고킨와카슈』의 630번의 노래 그대로이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고킨와카슈』의 와카를 적절하게 인용해 활용하고 있다. 오늘 날 우리들이 좋은 시를 암송했을 때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것을 암기해 반복해서 인용하는 것과 같이 당시 사람들은 『고킨와카슈』의 노래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와카는 완전히 귀족의 일상세계에 침투해 있어 그들에게는 쓰라유키처럼 와카 복권을 위해 자신의 노래로 모델을 제시할 필요는 없었다. 『고센와카슈』 편찬 목적 자체가 주로 후궁을 중심으로 한 와카 이야기나 전대의 유명 가인에 관한 노래를 많이 모아 수록하는데 있었고 편찬자라고 하여 그들이 반드시 탁월한 가인일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¹⁵⁾

이어 간단하게 『슈이와카슈(拾遺和歌集)』부터 『긴요슈(金葉集)』의 연가에 관해서도 일별해 보자.

『슈이와카슈』는 증보·개정 과정의 과정을 거쳐 1008년경 성립하는데 『고센와카슈』에서 보이는 일상생활에서 주고받은 와카는 모습을 감추고 대신 우타아와세(歌合)나 병풍가에 의해 대표되는 공적인 자리에서 읊어지는 노래가 대량으로 수록되어 있다. 『고센와카슈』에 대한 반작용으로 고킨슈가 지향한 세계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고, ‘연가’ 역시 1351수 중 379를 차지하여 1/3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당시 아카조메 에몽(赤染衛門) 미치쓰나노 하하(道綱母) 세이쇼나공(清少納言) 무라사키시키후(紫式部) 이즈미시키후(和泉式部) 등 유명한 여류가인들이 활동하던 시기이지만 만요 고킨 고센 시대의 정평이 있는 가인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이들의 노래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 당시 유행하던 병풍가의 영향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읊어지는 유명한 와카를 많이 채록하고 주제별로 배열한 부분도 눈에 띈다.

하지만 4대 칙찬집인 『고슈이슈(後拾遺集)』는 1086년 성립. 와카 경연대회라 할 수 있는 우타아와세(歌合)가 많이 행해지고 지방관으로 역임하고 있는 수령층 가인들의 노래와 위에서 언급한 여류가인들의 노래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연가의 비중은 1229수 중 228수 1/5의 비율로 공적인 세계에는 읊어지는 노래를 중시한 『슈이와카슈』의 작품세계와는 달리 『고센와카슈』처럼 일상생활과 관련된 남녀의 증답가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

다섯 번째 칙찬집인 『긴요슈(金葉集)』는 여러 가지 경향을 가진 다양한 노래를 수록하고 있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없다. 칙찬 삼대집(三代集)의 전통적이 발상이나 표현기교를 계승하면서 참신성을 더하려고 새로운 가풍의 노래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 연가 항목을 보면 이전의 가집보다는 ‘사랑(恋)’이라는

15) 앞의 책 71p

제목 아래 예술적으로 창작되는 題詠의 노래, 寄織女恋(363)·寄水鳥恋(364)·寄水鳥恋(365)·寄夢恋(366)·後朝恋の心をよめる(381)·恋の心をよめる(383) 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나아가, 계절이나 풍경묘사의 노래가 시인의 연애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연정을 공공연히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절 등 다른 요소로 위장하여 간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기법이 발달한 것이다. 일본어는 지금도 그렇지만 주어를 생략한다. 나를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만 해도 의미전달은 충분했던 셈인데 이러한 요소 때문에 다의적이고 여러 의미를 중첩시킨 표현을 쉽게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16) 충분히 수궁이 가는 지적이다.

『고센와카슈』와 거의 동시에 편찬된 가집에 『고킨와카로쿠쥬(古今和歌六帖)』(970~984년 성립 추정)가 있다. 이 가집은 천황의 명령으로 펴낸 칙찬집이 아니라 개인이 편찬한 가집으로 4천 수 가량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앤솔로지의 특징은 전부 비슷한 항목의 노래들을 분류해 놓은 유제와카집(類題和歌集)이라는 점이다.

가집의 제4첩(第4帖)에 사랑(恋)이란 노래와 제5첩(第5帖)에 잡념(雑思)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했다.

먼저 ‘제4첩 사랑(恋)’의 경우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제목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恋 · 片恋 · 夢 · 面影 · 転寝 · 涙川 · 恨 · うらみず · ないがしろ · 雑の思

우리말 제목으로 풀어보면 ‘사랑· 짝사랑· 꿈 · 님의 모습 · 선잠 · 눈물바다 · 원망 · 원망하지 않음 · 소홀히 함 · 잡념’이 된다. 『고킨와카슈』처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참고가 되도록 다양한 내용의 노래들로 분류되어 있다.

제5첩의 ‘雑の思(잡념)’에는 65수나 들어 있는데 지면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일부의 제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知らぬ人 · 云ひ始む · 年へて云ふ · 始めて逢へる · あした · しめ · あひ思ふ · あひ思はぬ · 異人を思ふ · 分きて思ふ · 云はで思ふ · 人知れぬ · 人に知る · 一人寝 · ふせり · 暁に起く · 一夜隔てたり · 二夜隔てたり · もの 隔てたり · ...中略... 遠道隔

16) 오카 마코토 지음 왕숙영 옮김 (2014) 『일본 시가의 마음과 민낯』 소명출판 113p

てたり・打ち来てあへる …後略…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모르는 사람 · 처음으로 말을 걸다 · 세월 흘러 말하다 · 처음으로 만나다 ·
내일 · 편지를 봉함 · 서로 그리워하다 · 그리워하지 않다 · 연인이 아닌 다
른 사람을 생각하다 · 완전히 사랑에 빠졌다 · 참는 사랑 · 남모르는 사랑 ·
남모르는 사랑 남들에게 들통나다 · 혼자 자는 잠자리 · 드러눕다 · 새벽에
잠이 깨다 · 하룻밤 거르다 · 두 밤을 거르다 · 사이가 멀어지다 …중략… 남
이 멀리 살고 있다 · 갑자기 찾아와서 만나다 …後略…

『고킨와카슈』와 비슷하면서도 더욱 세밀한 단위로 사랑의 진행과정을 다
루고 있고 제목도 구체적이다.

이 가집은 당시의 기상천외한 천재 미나모토노 시타고우(源順)가 편찬했다
는 설이 유력¹⁷⁾한데, 고킨슈처럼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
외의 노래들을 모아 편집하여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
킨슈처럼 우아하고 격조 있는 노래만 채록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이 가집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노래는 <知らぬ人>란 제목 하에 읊어진 한 수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알기 이전 단계에 읊은 노래이다.

誰はかは知らぬ先より人を知る知らぬひとこそ知る人になれ

그 누구를 처음부터 안다고 할 수 있나. 모르는 사람을 차차 알아가는 법

大空に我を思はむ人もがなはかなきことは後に定めむ

드넓은 하늘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네 후회는 만난 다음에 할 일

체면을 차리거나 격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직설법으로 상대방에게 호소하고
있다. 고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중가요에서나 들을 것 같은 내용이다.

人妻は森か社かから国のとらふす野べか寝て心みむ

저 유부녀는 숲인가 신사인가 조선 호랑이 누워있는 들판인가 어디 한 번 자 보자

紫に匂へる妹をにくくあらば人妻故に我こひめやも

궁궐로 들어간 당신 아직도 밉지 않으니 유부녀인데도 내 사랑은 여전하오

ゆめにのみきききききとききききときききききといたくとぞみし

꿈속에서만 당신을 께오욱 께욱 께안아 보네

17) 犬養籐外六人 編纂 (1986) 『和歌大辞典』 明治書院 447p

君によりよよよよよとよよよよとねをのみぞなくよよよよよと
당신 때문에 흐흑 흐으흑 소리내어 운다 흐으흑 흐으

감성과잉으로 외설스럽고 유치하여 이러한 것들도 시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노래들이다. 우아하고 고상하고 기품 있는 세계를 지향하는 『고킨와카슈』에서는 음미할 수 없는 노래들을 많이 실고 있다.¹⁸⁾ 지면의 제한으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밖에도 비장미와 끌계미를 자아내는 노래들이 많다.

당시 편찬자들은 세상의 모든 연애는 발생 지속 소멸의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이 과정 중의 하나에 속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어찌 되었든 10세기에 사랑에 관한 참고서적 즉 처방전이 발간되었다는 것은 한국 문학사에 비추어 봐도 이례적이라 생각된다.

4. 연가와 헤이안 산문문학의 영향관계

오카 마코토(大岡信) 씨의 지적처럼 와카와 산문의 관계를 보면 헤이안 초기와 중기에는 와카가 우세하다가 점점 세력이 역전되어 산문이 우세해진다. ¹⁹⁾

초기의 모노가타리 작품을 검토해 보면 모노가타리임에도 불구하고 산문은 와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우타모노가타리(歌物語)’라 분류되는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 역시 와카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전개되는 125개 이야기의 모음집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작품인데 내용의 중심은 남녀 간의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1단의 어떤 남자가 성인식을 끝내고 자신이 다스리는 영지가 있는 곳에 사냥을 갔다가 울타리 너머로 아름다운 두 자매를 발견한다. 두 자매에 반한 남는 자신의 옷소매를 잘라 그 소매에 다음과 같은 노래를 읊어 보낸다.

春日野の わがむらさきの すりごろも しのぶのみだれ かぎりしられず
가스가 들녘 연보라로 물들인 흐트러진 옷무늬처럼 당신 그리는 마음 한없이
흔들리네

18) 大岡信 (1995) 『あなたに語る日本文学史』 親書館, 127p 참조

19) 注15) 의 책 185p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의 색깔과 문양에 자신의 마음을 빚대어 두 자매의 매력에 동요하는 심정을 읊어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끝머리에는,

みちのくの しのぶもちずりたれゆへに 乱れそめにし我ならなくに
미치노쿠의 시노부즈리처럼 누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나 당신이 아니면...

이라는 노래의 정취를 답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옛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정열적인 풍류를 즐겼다고 맺고 있다. 와카가 풍류인의 조건임을 이야기 말미에서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와카란 즉 연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와카는 사교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대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주인공의 삶의 굵이굵이를 노래로 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 삶의 궤적을 와카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속에 삽입된 와카는 단지 부수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와카가 존재함으로써 산문의 서술 부분이 보다 강한 전달성을 갖게 된다. 연가와 산문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고전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등장인물들의 연애묘사이다. 주인공 겐지가 여러 부류의 여성과 나누는 사랑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여러 여성과 주인공 히카루겐지가 정계의 한 과별의 우두머리역할을 하면서도 정책에 관한 얘기나 집무에 관한 묘사는 거의 없다. 『겐지모노가타리』의 주인공 히카루겐지에게는 현실을 초월한 많은 속성과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이로고노미’도 그 능력 중의 하나이다. 스즈키히데오에 의하면 ‘이로고노미’란 상대방 여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²⁰. 겐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로고노미’를 미덕으로 갖추고 있는 주인공으로 조형되어 있으며, 그 ‘이로고노미’는 와카를 통해 성취된다. 나카무라 신이치로(中村真一郎)씨의 지적처럼 문학의 천재가 연애의 천재이기도 했던 시대였던 셈이다.²¹

이런 모습이 헤이안 귀족사회의 이상적인 남성상이었다. 연애도 와카도 인간 정신세계의 자유를 표현하고 있던 시기였다. 히카루겐지라는 이상형의 인물의 조형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이 가능했던 것이다.

작품 속의 실례를 보자.

히카루겐지는 부친인 기리쓰보 천황의 총애를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자유로이 후궁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황후로 맞아들여진 후지쓰보의 모습이

20) 스즈키 히데오 지음 김홍래 옮김(2011) 『처음 읽어 보는 겐지모노가타리』 글누림 27p

21) 中村真一郎 『源氏物語の世界』新潮選書 1990 20p

죽은 어머니와 닮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더욱 더 흠모하게 되고 그것이 어느 새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기리츠보권(桐壺卷)」에서 겐지는 이미 좌대신의 딸과 결혼한 처지이지만 후지쓰보를 이상적인 여인으로 생각한다. 후지쓰보의 미덕만을 계속 떠올린 겐지는 상념에 빠지게 되고 막연한 동경과 연모로 「와카무라사키권(若紫卷)」에서는 후지쓰보와 밀회를 갖는 관계로 발전되어 간다. 이 장면에서 겐지가 먼저 흐느끼며 다음과 같이 와카를 읊는다.

見てもまたあふよまれなる夢の中にやがてまぎるるわが身ともがな

이렇게 만나기는 했어도 또 다시 볼 수 있는 밤이 좀처럼 없을 테니 차라리 꿈속에서 이대로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러자, 이 노래를 들은 후지쓰보는

世がたりに人や伝へんたぐひなくき身を醒めぬ夢になしても

후세에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 누구보다 괴로운 이 신세를 깨어나지 않는 꿈으로 만들어도..

라고 답하며 괴로워한다. 자신의 진정을 담아 와카에 의탁해 전달하고, 이를 와카로 답해 두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고 있다. 22)

지위가 높은 후지쓰보와의 사랑이 여의치 않을 때 겐지의 마음을 충족시켜 준 여인은 로쿠쥬 미야스도코로이다. 미야스도코로는 다른 여성보다 자부심이 강한 성격으로 주위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겐지와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나이가 겐지보다 많다는 점을 의식하며 항상 번뇌하고 우수에 차 있다. 우차 자리다툼 이래로 겐지는 병문안을 와서 격조했던 이유를 늘어놓지만 그녀의 심정을 이해 못한다. 「아오이권(葵卷)」에는 두 사람의 사랑과 집착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노래를 주고받는다.

袖ぬるこひちとかつは知りながら下り立つ田子のみづからぞうき(로쿠쥬미야스도코로)

소매 젖는 줄 알면서도 사랑에 빠졌네요 괴로운 것인지를 알기에 더욱 슬퍼요

浅みにや人は下り立つわが方は身もそほつまで深きこひちを(겐지)

소매만 적시다니 당신은 알게 빠졌나 봐요 나는 온 몸이 젖을 만큼 깊은 사랑이래요

22) 후자의 ‘世がたりに~’의 노래는 『이세모노가타리』 69단에도 나오는 노래이다. 후지쓰보가 불의를 저지른 자신을 ‘たぐひなくき身’라고 한탄하는 데 비해, 『이세모노가타리』에서는 그런 자각이 드러나 있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첫날밤을 지낸 후 남자는 기누기누노우타(남녀가 하룻밤의 정사를 나눈 다음 날 헤어지기 섭섭함을 부른 노래)를 보내야 하는데 와카 없이 편지만 남기고 간 겐지를 원망하면서 그에게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을 읊고 있다. 가케고토바를 사용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 겐지의 노래는 미야스도코로의 편지를 받고 고킨와카슈를 인용해 지은 노래이다.

텍스트에는 미야스 도코로의 노래를 들은 겐지가 ‘袖ぬるるやいかに。深からぬ御ことになむ²³⁾ (소매 적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지요. 저를 향한 정이 깊지 않다는 건가요’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겐지는 미야스도코로가 읊어보낸 이 노래가 『고킨와카슈』의 노래 <浅みこそ袖はひつらめ涙川身さへ流ると聞かばたのまむ(애정이 얇기에 소매만 젖는 거요. 젖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로 가득 채워진 강에 떠내려 간다고 하면 당신을 믿겠소)를 인용했다는 것을 알고 답가를 보내고 있다. 작품 속의 사랑의 증답가는 이런 식으로 옛 연가를 인용해 예의를 갖추는 형태를 띠면서도 자신의 사랑이 매우 깊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도 작품 속에는 『고킨와카슈』와 같은 전통가집이나 『이세모노가타리』의 와카를 활용해 주인공들이 대화를 주고받게 하고 숨겨진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많다. 이는 작자가 『고킨와카슈』와 같은 가집으로 인해 형성된 와카언어가 매우 함축성이 강한 언어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표현매체로 자리잡은 전통가집의 연가에 의해 표현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충분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지만 산문 속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함축성이 강한 와카 속의 한 구절을 도입하여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부분도 있다. 모노가타리 속에 794수의 와카를 창작해 넣었다는 사실도 와카가 갖는 유효성을 중시했다는 반증이라 생각된다.

당시 작품 속에 나타난 겐지의 이르고노미의 행각은 헤이안 시대의 실생활의 반영이라고 여겨진다. 당시 귀족의 생활이 전부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겐지가 일으킨 연애사건이나 연애관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헤이안 시대 귀족들에게 있어서 연애란 현대인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관심거리였다고 생각된다. 현대어에서 <세상>을 의미하는 용어인 <요노나카>란 말은 헤이안시대에 남녀의 세계를 뜻함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럴 때 연가는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다.

일기문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가케로우일기』는 일기의 작자가 천황 다음으로 신분이 높은 섭관정치의 중심인물인 후지와라노 가네이에(藤原兼家)

23) 阿部秋生·秋山虔·今井源衛·鈴木日出男校注·訳(2000)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2), 小学館, 1995. 35p

와 결혼하여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던 21년간의 결혼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여러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정쟁에 바쁜 남편과 어떠한 생활을 영위했고 그 괴로움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이 일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도 와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의 다음 구절을 보며 작자의 서술 방식에 관해 고찰해 보도록 하자.

가네이예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여자 마치노고지(町の小路)란 여자를 찾아 다니기 시작해 이 여자에게 열을 올리게 되어, 작자는 남편에 대한 불신과 질투로 번민을 계속한다.

歌し起きはただ幼き人をもて遊びて「いかにして網代の氷魚に言問はむ」とぞ心にもあらで
うち言はるる。24)

‘밤이나 낮이나 다만 젊은 애를 상대로 지내면서 「어떻게든 나를 방문할 수 있는데 왜 찾아오지 않는가(いかにして網代の氷魚に言問はむ)」란 옛 노래가 자기도 모르게 새어 나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いかにして網代の氷魚に言問はむ」란 『슈이와카슈』의 1134의 노래 「いかにして網代の氷魚に言問はむ何によりてかわれをとほぬと」 노래의 윗구를 인용한 것이다. 이 노래는 『고킨와카로쿠조』에도 수록되어 있다. 남편 가네이예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원망을 슈이슈의 ‘網代の氷魚’²⁵⁾의 와카를 인용하여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슈이와카슈』 내지는 『고킨와카로쿠조』 등의 옛 와카를 인용하는 방식은 중권 후반으로 갈수록 ‘~と’ ‘~といふ’ ‘~にて’란 형태로 많이 등장한다.

또 다른 장면을 예로 살펴보자.²⁶⁾ 여자 문제로 우울해 있을 즈음, 어느 여름 달밝은 밤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며 지내던 옛 시절이 생각나 남편인 가네이예한테 노래를 읊어 보낸다.

曇り夜の月とわが身の行く末のおぼつかなきはいづれまされり
어디를 향하는지 몰라 걱정되는 구름 속의 달과 내 장래 중 어느 것이 더 불안할까

그러자 ‘답신은 농담처럼(返りごと、たはぶれのように)’ 되돌아 왔다.

おしはかる月は西へぞゆくきはわれのみこそは知るべかりけれ

24) 주12) 앞의 책, 107p

25) 노래의 서문을 보면, 우지강에서 잡아올린 빙어를 받기 위해 궁중으로 출사하지 않으면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핑계대자 부른 노래로 되어 있다.

26) 月夜のころ、よからぬ物語して、あはれなるさまのことも語らひてもありころ思ひ出でられて、ものしければ、かくいはる。가게로129p

추측컨대 달이 향하는 곳은 서쪽이고 그대가 의지할 곳은 나라는 알고 있을텐데…

라고 왔다면, ‘듬직한 듯이 말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아내란 내가 아닌 다른 곳이고 실로 기대한 것과는 다른 부부지간이었다(などたのもしげに見ゆれど、わが家のおぼしき所は、ことになむあんめれば、いと思はずのみぞ世はありける)’라고 기술하고 있다.

마치노고지(町の小路)란 여자의 등장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자신의 장래의 불길한 예감 때문에 남편에게 ‘구름 속의 달’과 ‘장래가 불안한 자신’ 중 어느 쪽이 의지할 데 없는지 남편에게 물어 보낸 것이다. 노래를 받아든 가네이에는 자신이 다 책임질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대범하게 노래로 답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작자의 불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작자는 그 이유를 ‘답신은 농담처럼(返りごと、たはふれのように)’이라는 산문부분에 드러내고 있다. 답가를 통해 가네이에는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작자에게는 진정성 없는 공허한 노래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작자의 불안한 심정, 점점 수습이 어려워진 두 사람의 관계를 작자는 증답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증답가나 독영가를 사용해 자신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식어감을 표현하는 것이 『가게로우일기』의 서술방식이다. 일기에는 권말 가집을 제외하고 작자와 정실부인인 도키히메(時姫)와 주고받은 렌가(連歌) 등을 포함해 261수의 노래가 분포되어 있다.

『이즈미시키부일기(和泉式部日記)』의 기술 방식은 어떠한가. 이 작품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작자 자신을 온나(女)라는 3인칭으로 설정하고 이치조 천황의 황태자 소치노미야와의 사랑을 전개하고 있다. 이 일기는 『가게로우일기』 1/3에 해당하는 짧은 분량의 작품이지만, 142수와 렌가 5수라는 많은 수의 증답가를 포함한 와카를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4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아쓰미치가 기거하는 곳으로 입궁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단지 자신이 체험한 일이나 자신의 내면을 기술이라기보다 특정한 미적 관념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다.

『全講和泉式部日記』의 표제(標題)를 참고해 일기의 전반부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 1 夢よりも儂き世の中
- 2 花橘の香
- 3 はじめてものを思うあしたは

27) 鈴木一雄·円地文子(1983) 『全講和泉式部日記』至文堂 目次 참고

- 4あひてもあはで
- 5槓の戸口
- 6五月五月雨のころ
- 7あかつき起き

일기의 첫머리 1의 ‘夢よりも儂き世の中’의 장면은 작자가 이미 고인이 된 소치노미야의 형을 그리며 꿈보다 덧없는 남녀간의 사랑을 한탄하며 비탄과 고독감에 젖어 있음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2의 ‘花橋の香’의 장면에서는 동생 황태자에게 심부름하는 시동이 나타나 꿀꽃을 작자인 온나에게 건넨다. 그러자 온나는 꿀꽃에 대한 연상으로 「昔の人の」라고 혼잣말을 하며 받아들인다. 이때의 「昔の人の」는 『고킨와카슈』의 노래

139 さつき待つ花たちばなの香をかげば昔の人の袖の香ぞする

오월 기다려 피는 꿀꽃 향을 맡으면 옛날 정답게 지낸 님의 소매향이 난다

의 제4구를 인용한 것이다. 『고킨와카슈』 노래의 한 구절 「昔の人の」로 돌아가신 소치노미야의 형 다메타카친왕에 관한 그리움을 압축시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는 곧장 소치노미야의 호의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와카①에 담아 적극적으로 전하자 새로운 사랑에 강한 의욕을 내비치는 미야의 답가②이 이어진다.

① かほる香によそふるよりはほととぎすきかばや同じ声やしたると

꿀향으로 고인을 그리워하기보다 당신(소쩍새)의 목소리가 형과 같은지 뵈고 싶구려

② おなじ枝になきつつおりしほととぎす声はかはらぬものとしらずや

같은 가지에서 울던 형제(소쩍새)인 만큼 같은 목소리라오. 당신에 관한 마음까지도

3의 ‘はじめてものを思うあしたは’ 4의 ‘あひてもあはで’ 7의 ‘あかつき起き’의 표제는 그것만으로도 『고킨와카슈』와 『고킨와카로쿠쇼』의 배열방식을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의 ‘あひてもあはで’ 5의 ‘槓の戸口’의 부분에서는 가타타가에(方違え) 28)로 찾아온 황태자를 두 번 거절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또한 사랑 감정의 어긋남을 표현하기 보다 「逢ひても逢はぬ恋」「くれど逢はず」의 연가의 전형적 장면을 제시하려는 인상이 강하다. 이에 관해서는 구보

28) 음양도에서 말하는 별자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으면 불길하다고 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지내는 일

키 히사코(久保木寿子)씨가 이미 지적하고 있는데, 29) 작자는 일기 전체의 구상을 할 때 선행가집인 『고킨와카슈』와 『고킨와카로쿠쥬』의 앤솔로지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차용해 작품을 완성했던 것이다.

7의 ‘あかつき起き’의 장면에서 읊은 소치노미야의 노래 「아침이슬 맞으며 헤어지는 마음에 비하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저녁이 더 낫다(朝露のおくる思ひに比ぶればただに帰らむ宵はまされり)」는 『고킨와카로쿠쥬』 五帖의 「긴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슬 내린 곳을 돌아오면 소매는 눈물로 가득 젖는다(長き夜を思ひ明かして朝露のおきてしければ袖ぞひちぬる)」는 인용한 노래이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증답가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틈을 전혀 주지 않는 내밀한 형식을 취하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당시 와카는 한 수씩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들이 주고받는 노래는 감정이 깊어지거나 고양되면 주고받는 와카의 형태가 두 수 내지는 다섯 수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둘만의 키워드를 삽입해 캐치볼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증답가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가게로우일기』의 작가 미찌쓰나하하도 이즈미시키부도 당대를 풍미한 유명한 재녀이며 가인이었다. 그런 여류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품의 완성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와카 참고서인 『고킨와카슈』와 『고킨와카로쿠쥬』 그밖에 다른 선행 작품의 세례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5. 나오며

이상으로 두서없이 헤이안 문학 속의 와카와 연가의 위상, 그리고 연가가 헤이안 시대 다른 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가 없이 와카는 존속하기는 힘들었고 연가가 계속 읊어짐으로써 『고킨와카슈』의 편찬이 가능했다.
- 『고킨와카슈』 속에 연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그 내용은 연애의 모든 양상이 그 진행과정, 즉 프로세스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 고킨슈 속의 연가는 헤이안시대의 일본문학 속에서 가인들의 필수 교양이었고 후대의 칙찬집이나 산문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고킨와카슈』 편찬 이후에 『고킨와카로쿠쥬(古今和歌六帖)』가 편찬되었

29) 久保木寿子 (2000) 『実存を見つめる和泉式部』 新展社 187~189p 참조

는데 이 가집에서도 연가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집의 앤솔로지 방식이나 『고킨와카슈』의 편찬 방침과는 달라 『고킨와카슈』와 함께 헤이안 중기 이후의 산문문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 『겐지모노가타리』, 『가게로일기』, 『이즈미시키부일기』 등의 작품은 『고킨와카슈』 『고킨와카로쿠쇼』 등의 와카 내용과 그 표현방식을 도입하여 등장인물의 대화 · 내면의 심리세계 ·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산문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문학세계를 전통와카를 활용해 창조해 낸 것이다.

오늘날 연애는 젊은이들에게는 낭만적이고 달콤한 것 어른들에게는 질질치 못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문학도 그런 식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연애와 문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는 인간정신의 자유의 표현이다. 그리고 문화나 문명이라는 개념이 자유정신의 정상에 피는 꽃이라면 와카와 연애가 절정기였던 헤이안 시대는 문화가 꽃핀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参考文献】

- 기노쓰라유키 외 엮음 구정호 옮김(2011), 『고킨와카슈 상』, 소명출판
스즈키 히데오 지음 김홍래 옮김(2011) 『처음 읽어 보는 겐지모노가타리』 글누림 27p
신선향 (2008) 『일본 헤이안 시대의 物語文学과 和歌』, 제이앤씨 348p
오카마코토지음·왕숙영옮김 (2014) 『일본시가의 마음과 민낯』, 소명출판 113p
阿部秋生·秋山虔·今井源衛·鈴木日出男校注·訳(2000)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源氏物語2』, 小学館, 1995. 35p
犬養簾 外 六人編纂 (1986) 『和歌大辞典』 明治書院 447p
大岡信 (1995) 『あなたに語る日本文学史』 親書館, 127p 185p
菊地靖彦·木村正中·伊牟田経久 校注·訳 (2000) 『土佐日記 蜻蛉日記』 小学館 288p
小島憲之·木下正俊·東野治之 校注·訳 (2000)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万葉集1』, 小学館, 1994. 346p 『万葉集4』, 108~109p
小町谷照彦校注 新日本古典文学大系, 『拾遺和歌集』, 岩波書店, 1990. 325p

- 岩井・茂樹 (2005) 「恋歌の歴史—江戸時代を中心に」 総研大文化科学研究
<http://handle.net/11094/24787>
- 片桐洋一 訳・注 (1990) 『古今和歌集』 創英社 440p
- 久保木寿子 (2000) 『実存を見つめる和泉式部』 新展社 187～189p
- 島津忠夫 (1991) 『和歌史』 和泉書院 71p
- 鈴木一雄・円地文子(1983) 『全講和泉式部日記』 至文堂 目次
- 鈴木宏子 (2006) 「古今和歌集の恋歌について—‘構造論’の授業における可能性」 『千葉大学教育学部研究紀要』 54, 2006
- 辰巳正明 (1996) 「恋歌—古今集の文学景観論」 『成城国文学紀要』 12
- 中野幸一訳注, 『伊勢物語』, 旺文社, 1990. 12p
- 中村真一郎 (1990) 『源氏物語の世界』 新潮選書 20 p
- 松尾聡・永井和子 校注・訳 (1978) 『枕草子』 小学館 89 p

要 旨

今回の論稿では、平安文学の中の歌と恋歌の位相、そして、恋歌が平安時代のその他の文学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のかについて考察した。その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

- 恋歌なしに和歌の存続は不可能であり、引き続き恋歌が詠まれたことで『古今和歌集』の編纂は可能であった。
- 『古今和歌集』の中の恋歌の比重は高く、配列は恋愛の進行のプロセスによる。
- 『古今和歌集』の中の恋歌は、平安時代の日本文学の中で歌人たちの必須教養であり、後代の勅撰集や散文文学に多大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
- 『古今和歌集』の編纂の後に『古今和歌六帖』が編纂されたが、この歌集でも恋歌は大きな比重を占めている。しかし、この歌集のアンソロジー方式は『古今和歌集』の編纂方針とは違い、『古今和歌集』とともに平安中期の文学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
- 平安中期以後の作品は『古今和歌集』『古今和歌六帖』などの和歌言語を取り入れて、登場人物の対話の贈答、内面の心理、高調した感情を表現している。散文だけでは描写出来なかった文学世界を和歌的方法を利用して作り出すのに成功したのである。

よく恋愛は人間精神の自由の表現であるといわれる。文化や文明という概念が精神の自由の絶頂期に咲く花なら恋愛と文学が流行った平安時代は文化が花開いた時期と言えるだろう。

キーワード：『古今和歌集』 恋歌 勅撰集の和歌 平安散文文学 恋愛 自由の精神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